

일주문

지구총공생회 COLA캠페인
지구총 공생회 이사장 율주 스님은 9월 1일부터 아프리카 케냐 카지아도 지역 엔요노로 초등학교 건립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한다. (02)3409-0303

실상사 개교10주년 기념토론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상임대표 도법 스님은 8월 28일 실상사 작은학교 강당에서 개교 10주년 기념 토론회를 개최한다. 063-636-3369

월정사 제1기 오대순례 열불수행학림
평창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8월 29-9월 4일 제1기 오대순례 열불수행학림을 개최한다. (033)339-6800

법주사 미륵대불전 삼천불 봉안식
보은 법주사 주지 노현 스님은 10월 23일 미륵대불전 삼천불 1차 봉안식을 개최한다. (043)543-4755

쌍계사 국태인민 방생대법회
하동 쌍계사 주지 상훈 스님은 8월 26일 섬진강 하동송림 야영장에서 평화통일과 국태인민 기원 방생대법회를 봉행한다. (055)883-1901

통도사 성보박물관 절터답사
양산 통도사 성보박물관장 현근 스님은 8월 25일 중원 미륵사지와 근위 인각사에서 절터답사를 봉행한다. (055)382-1001

백락사 환경설치 미술전
홍천 백락사 주지 성민 스님은 8월 21일-9월 4일 백락사 경내에서 환경설치 미술전을 개최한다.

대구 법왕사 백고좌 전야 산사음악회
대구 법왕사 주지 실상 스님은 8월 25일 저녁 7시 법왕사 앞마당에서 제21회 100인 큰스님 초청 백고좌 전야 산사음악회를 개최한다.

포교사단 8재계 수계법회
임희웅 조계종 포교사단장은 8월 28-29일 평창 월정사에서 8재계 수계실천대법회를 봉행한다.

대한불교청년회 숲길 명상
정웅정 대한불교청년회 회장은 8월 20-22일 지리산 일원에서 '도법 스님과 함께하는 생명명화 숲길 명상'을 실시한다.

■ 화계사 신임 주지 수암 스님

세계일화 · 생명살림 도량으로

“송산 스님의 세계일화 정신과 수경 스님의 생명살림 정신이 활짝 꽃피는 도량으로 가꾸겠습니다.”

수경 스님의 뒤를 이어 화계사 주지에 임명된 수암 스님(前 화계사 총무국장·사진)은 8월 11일 주지 임명 후 화계사를 국제포교와 생명살림의 도량으로 가꾸겠다고 말했다.

총무국장으로서 화계사의 안살림을 맡아 온 수암 스님은 먼저 지난 6월 승적포기를 선언하고 은거한 전임 주지 수경 스님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털어냈다.

수암 스님은 “수경 스님이 세상의 번민과 고통을 타파하겠다고 새로운 화두를 던지고 뛰어들 때 때때로 함께 하지 못해 안타깝고 죄스럽다”며 “주지직을 비울 수 없다는 뜻에서 어른 스님들께서 불가피하게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스님은 먼저 송산 스님의 세계일화 정신을 계승해 국제포교의 근본도량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스님은 “화계사는 그 무엇보다 송산 스님의 국제포교 원력이 서린 근본도량”이라며 “국제선원 활성화로 외국인 제자들이 쉽게 찾아와 수행정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스님은 수경 스님의 생명살림 정신을 확대해 중생살림을 보살피는 화계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스님은 “불교대학의 교육, 시민선방·템플스테이의 선수행, 신도들의 복지 이 세 가지를 기본 축으로 신도 살림과 이웃 살림에 보다 신경 쓸 것”이라며 “국도를 청정히 하고 못 생명을 살리자는 수경 스님의 정신을 살려 중생의 아픔을 폭넓게 아우를 수 있는 화계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현재 1억 6000만원 수준

인 포교·복지예산을 점차 적으로 두 배 이상 늘린다는 계획이다.

다양한 포교와 복지활동을 통해 신도들이 동참의 즐거움 느끼게 하고 이를 통해 신도 결집력 높인다는 것.

현재 진행 중인 결식 아동 돕기, 라오스 화계초등학교 지원 등과 함께 빈민촌 자비도량 건립, 이주민 노동자 무료 진료, 난치병 어린이 초형 치료 등도 추진된다.

수암 스님은 “세계일화와 생명일화의 꽃이 피어나는 도량으로 그 정신이 지속되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암 스님은 1986년 수덕사에서 원담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89년 범어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받았다. 덕숭립 방장 시절 스님의 상좌로 수덕사 교무국장, 조계종 총무원 총무국장을 거쳐 화계사 총무국장을 맡아 왔다.

현재 이에 앞서 올해 4월 화계사 주지로 재임했던 수경 스님은 문수스님의 소신(儆身) 일저 등을 겪은 후 6월 14일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떠난다. 초심으로 돌아가 진솔하게 살고 싶다”며 화계사 주지직과 승적을 포기하고 은거에 들어갔다.

노덕현 기자

■ 문화재제자리찾기 사무총장 해문 스님

“반환운동은 순례의 길”

조선왕실의계 반환은 정부가 포기하다시피 한 것을 민간단체가 이뤘다는 점에서 문화재반환운동의 전환점입니다. 반드시 조선왕실의계 반환에 한일 양국이 더 깊은 우호관계로 나아가길 기원합니다.”

문화재제자리찾기 사무총장 해문 스님(사진)은 ‘조선왕실의계’ 반환운동의 주인공이다. 스님은 2004년 교토에서 도쿄대에 조선왕조실록이 소장된 사실을 확인했다. 2006년 3월 해문 스님이 주축이 돼 조선왕조실록 환수위가 공식 출범했고, 같은 해 도쿄대로부터 조선왕조실록을 반환 받기에 이르렀다.

해문 스님은 만족하지 않았다. 8월 스님은 일본 후쿠오카의 ‘쿠시다’ 신사에서 명성황후를 살해한 칼 ‘히젠도’를 확인했다. 9월에는 ‘조선왕실의계환수위’ 출범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해문 스님은 “문화재 제자리찾기란 단순한 문화재 문제를 넘어, 약탈의 역사를 극복하고 ‘진실, 양심과 같은 가치’를 찾아 가는 운동”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일본 총리가 한일강제병



합 100주년 담화문에서 밝힌 내용은 전반적으로는 안타깝지만 조선왕실의계 반환이 언급된 것만큼은 뜻 깊은 일”이라며 “조선왕실의계 반환을 위해 노력했던 지난 4년은 내 나름대로 진리를 찾아 나선 구도의 길이었으며, 진리를 찾아 헤맨 순례의 길이었다”고 말했다.

“진실은 언제나 상상할 수 없는 힘을 발휘합니다. 그 말을 나는 굳게 믿습니다.” 조동섭 기자

■ 달라이 라마, 누브라밸리 법문

“자비의 또 다른 이름은 공정”

누브라밸리(Nubra Valley), 중국 그리고 파키스탄 국경과 마주해 1990년도에서야 비로소 외국인에게 개방된 이곳에서 7월 21-27일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14대 달라이 라마(텐진카초)의 법회가 열렸다.

40도를 웃도는 기온 속에서도 2만여 명의 청중이 법회에 동참했다. 그 가운데 400여 외국인도 법회 일정 마지막까지 달라이 라마를 향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다음은 법문 요지

11세기 인도의 위대한 스승 ‘실로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정한 마음은 색도 형태도 없네. 이는 즉여도 밝지도 않음이며,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일 것도 아니라네.”

중도의 한 대목입니다. 마음은 독립적이거나 규정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지금까지 극단의 선택을 강요당하는 삶을 살아왔기에 뇌는 이 대목을 이해하기 힘들어 잠시 주춤거리고 있을 것입니다. 티베트 본토에서 많은 동족들이 전쟁으로 인해 목숨을 잃었을 때, 저는 흘러나오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살며, 살아가며 부딪히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마음 깊이 상처를 남긴 아픔이 있습니다. 저는 모든 이들에게 중국정부와 중국인을 혐오하거나 비난하기에 앞서 그들에게 집착 없는 자비심을 내보이라고 권고합니다.

중국의 2억 불자들이 진심으로 불교의 참뜻을 바로 깨우치는 날, 티베트인의 자유는 순리이거나 인류사의 불교는 새로운 페이지를 장식할 것입니다. 국적과 인종 그리고 종교 등과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 똑같은 존엄한 인류입니다. 지금 잠시 잊고 있던 내 안의 바른 마음, 공정의 마음을 발견하십시오. 그 마음이 바로 자비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풍요로운 마음이란 결국 건강한 신체로 드러납니다. 우리는 고귀한 인간의 몸을 받은 것과 무상을 기억해야 합니다. 윤회의 고통을 알아차려 다음 생의 번뇌 연을 끊을 수 있도록 정진해야 합니다. 해탈로 인도하는 공성의 길을 지혜로서 일깨우십시오. 완전한 길로 가고자 하는 출리

심은 바로 붓다의 길입니다. 보리심의 공성을 이해할 때 무수한 겁이 지어놓은 무지의 감옥에서 출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공성은 연기법에서 생합니다. 또한 연기법은 공성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본래 성품인 공성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갖추기 위해서는 마치



달라이 라마 법회가 7월 21-27일 인도 누브라밸리에서 진행됐다. 달라이 라마의 법회에 참석한 2만여 관중은 40도가 웃도는 기온 속에서도 자리를 뜨지 않았다.

강물이 흐르는 바와 같이 얽매임 없는 바른 사유를 필요로 합니다. 지식에 의존하려 들지 마십시오. 지식이 아닌 지혜의 거울로 바른 불자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우리는 모두 그 길 위에서 만난 반가운 인연입니다. 인도 누브라밸리=가연숙 객원기자 onflower@gmail.com

조계종 64개 종단 통합 준비

“조계종”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전국 64개 종단 대표들이 지난 28일 울릉)조계종삼화불교 총무원회의실에서 회의를 갖고 불교조계종삼화불교를 중심으로, 전국종단을 교구본산제로 통합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전국 약 4,000개 사찰을 하나의 교구 본산제로 만들 예정입니다.

청정계를 종단 조계종 종단 통합은 32교구본산제로 종단이 32교구 독립체산제로 운영됩니다. 연금제도와 교육통합, 울원, 역경원, 염불원, 선원, 무문관 등을 운영하며 새로운 교육을 받는 주지는 전원 연금제도를 실시합니다. 조계종 사용 종단이 통합하면 한국 제 1종단이 됩니다.

회장 : 조계종 삼화불교 부회장 : 조계종 정토불교 사무총장 : 대한국불교조계종

Table listing 64 Buddhist sects and their integration details, including categories like '이사종단' and '대한불교'.